

현장시선



고 태 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회장

2026년 가을, 제주의 산과 바다가 다시 한번 전국 스포츠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감동으로 물든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연이어 펼쳐진다.

제주는 12년 전인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 당시 안정적인 대회 운영과 도민들의 따뜻한 정성으로 전국에서 찾아온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선물했다. 12년 만에 다

2014년의 감동을 넘어, 인정 넘치는 따뜻한 제주 전국체전

시 제주에서 열리는 2026년 체전은 그날의 감동을 이어받아 한층 더 성숙해진 제주의 포용력과 공동체 의식을 전국에 보여주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국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을 한 달여의 간격을 두고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두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만 4만여 명이 참가하며 가족과 응원단, 관광객까지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게 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체전을 결정하는 것은 경기 결과나 화려한 시설만이 아니다. 제주를 찾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도민들의 친절함 미소와 따뜻한 배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랄로 체전의 성공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이를 위해 선수와 자원봉사자, 도민 모두가 각자 마음을 모아야 한다. 선수들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마음껏 펼치면서도 승패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장애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소통과 존중이아랄로 경기장을 감동으로 채우는 힘이 될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방문객들이 체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제주의 얼굴이자 대회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다. 친절함 안내와 따뜻한 미소는 방문객들이 제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오래도록 기억되는 인상이 될 것이다.

도민들의 생활 속 참여도 중요하다. 길을 묻는 방문객에게 건네는 안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지키는 작은 실천,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

한마디가 모일 때 진정한 '인정' 넘치는 체전'이 완성된다.

제주에는 예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정을 나누는 '수놓음'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이 남긴 값진 자산도 제주인 특유의 수놓음 정신이 만들어 낸 공동체의 힘이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체전을 더욱 따뜻하고 품격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선수들의 열정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도민들의 환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제주의 가을은 화합과 공감의 장이 될 것이다. "제주는 자연도 아름답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따뜻한 곳이었다." 이러한 찬사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손님맞이를 준비해야 한다. 2026년 제주 전국체전 성공의 진정한 주인공은 제주를 사랑하는 도민 모두이다.

사설

오영훈 전 지사, 혈세 낭비 도민에 사과해야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에 따른 혈세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항로 개설 협정에 대한 주민 감사와 주민소송을 예고했다. 특히 협정으로 인해 제주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 당사자인 오영훈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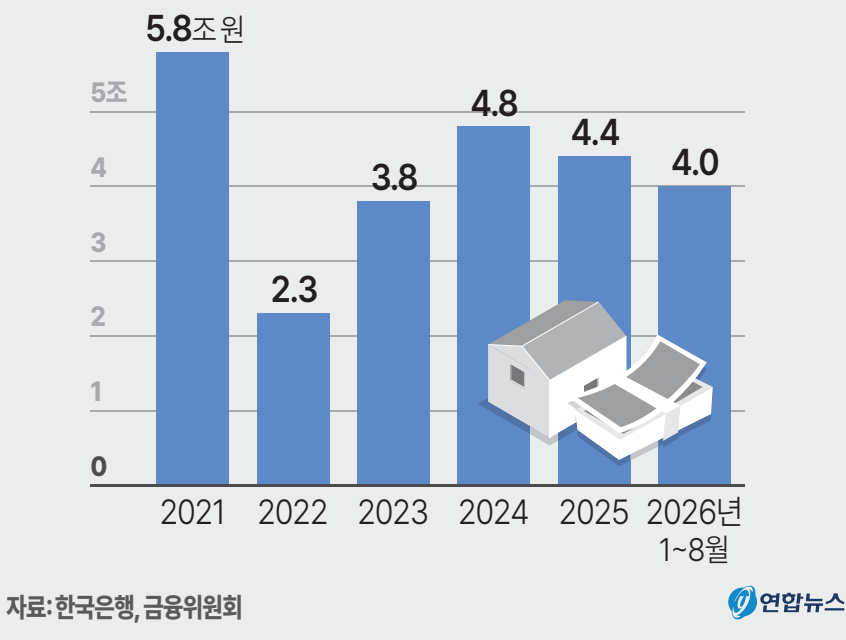
제주도는 중국 선사에 매년 최대 73억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3년 협정을 체결했다. 이 단체는 중앙투자심사를 누락하면서 지불한 손실보전금만큼 지방교부금에서 감액을 받게 돼 항로 개설로 인해 제주도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최대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오 전 지사가 항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제주도정 차원의 TF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모두

부정하면서 협정에 서명해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를 위해 주민 서명 운동에도 돌입한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으로 도지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의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데도 항로 개설을 강행한 오 전 지사는 이제 감사와 구상권 청구 대상이라는 공지에 몰리게 됐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오 전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도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도민에게 진술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주택관련대출 월평균 증가액 추이



열린마당

제주 전기차 5만 시대, 이용은 좋아졌는가



양 인 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주에서 실제 운행되는 전기자동차가 처음으로 5만 대를 넘어섰다. 2026년 8월 말 기준 제주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41만5370대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는 5만718대다. 전체 차량의 약 12.2%, 즉 8대 중 1대꼴이다. 충전기도 완속·급속·초급속을 포함해 1만2532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의 초점은 '몇 대를 보급했느냐'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로 옮겨가야 한다. 충전기가 있어도 고장이나 결제 오류, 특정 시설 이용 제한 때문

에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급속충전기의 노후화와 수리 지연 문제는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충전기 숫자뿐 아니라 실제 가동률과 수리 시간까지 관리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제주는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V2G 실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많은 제주에서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배터리'가 될 수 있다. 전력이 남을 때 충전하고 필요한 시간에 다시 공급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제주형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전기차 5만 대 돌파는 의미 있는 성과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보급 대수가 아니라 충전 편의성과 관리 품질, 에너지 산업과의 연계다. 제주가 '전기차가 많은 지역'을 넘어 '전기차를 가장 잘 이용하는 지역'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 치안대책, 심도있는 검토·분석을

한동안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었다. 차의 성능이 좋아지고, 도로가 신설·확장되며 과속이 빈번해진 까닭이다. 교통안전시설도 턱없이 모자랐다. 신설 도로가 지나는 마을의 주민과 운전자들이 속절없이 변을 당했다.

정부의 의지와 경찰의 실천력이 하나가 되며 변화가 움텄다. 정부는 중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도로구조를 살폈다. 맞춤형 대책이 마련됐고, 위험 도로는 순차적으로 개선됐다. 경찰은 취약 구간에 CCTV를 설치, 과속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읍주단속과 함께 사고가 잦은 구간에 경찰을 배치, 안전한 도로를 유도했다. 부단한 노력 끝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간 20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제주경찰청이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내놴다. 신고부

터 수색·발견·종결까지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수색 등 처리과정을 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실종사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4~5명이 근무하던 실종수사팀 인원을 9명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가용인력·장비를 최대한 활용, 도보·거점순찰을 강화하는 등 '보이는 치안' '공동체 치안'을 천명했다.

경찰의 각오와 변화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안전한 제주'를 위해선 보다 정교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통해 선진적인 실종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국제범죄에 대응할 전문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더불어 드론·CCCTV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등 미래형 방법체계도 고민할 시점이다. 치열한 각오와 혼신의 노력 없이는 신뢰를 되돌릴 수 없다.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당사(SK(주))는 아래 주식취득인가 심사 대상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자 에스케이이티비(주)의 최대주주인 이클림스(주)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가심사 대상 발전사업의 내용

발전사업명	용량 (kw)	주소	면적 (㎡)	사업 개시일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에스케이이티비(주) (주) 김해중	30,000	제주 서귀포시 가리리동 1호 일대	28,899	2015.01 ~ 2035.01	

2. 의견제출기간
2026년 9월 11일 ~ 2026년 9월 18일 (7일간)

3. 의견제출방법
(T) 02-6386-0706 / 02-6386-6621 (F) 02-772-4001
(email) noori.na@leeko.com / dongyoon.kim@leeko.com
(우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10층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 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